



(왼쪽 4번째부터)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 정책효과 ‘성장유형’ 따라 달라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 필요 커져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고성장 기업은 고용 증가 두드러져
잠재력 높은 기업은 매출개선 뚜렷
수출바우처 비수출기업서 성과 커
단년도·소액서 다년도·패키지 전환

빠르게 커가는 기업에는 고용에 대한 지원효과가,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는 매출을 올리기위한 정책효과가 각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바우처 지원은 수출기업보다 비수출기업에서 효과가 컸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에서 나왔다.

이날 행사는 ‘모두의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환 : 성장유형별 성과와 스케일업 지원’을 주제로, 중소기업의 성장유형별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성과를 모두의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준엽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SIMS(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중소기업 약 24만4000개사와 67개 성장촉진 지원사업

을 분석해 기업의 성장유형과 성장잠재력에 따른 정책효과를 살펴봤다.

김 부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성장기업에서 고용에 대한 지원효과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서도 매출에 대한 정책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면서 “성장촉진형 지원사업의 경우 성장성·성장잠재력 기반 사전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별하고, 단년도·소액·분절적 지원에서 다년도·대규모·패키지형 스케일업 지원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번째 주제발표를 한 전계형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수출바우처사업의 수혜기업과 비수출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정책효과와 기업 특성에 따른 효과 차이를 설명했다.

전 교수는 “분석 결과 수출바우처 지원은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기존 수출기업보다 비수출기업에서, 매출과 업력 등 일정한 사업기반을 갖춘 기업에서 지원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면서 “수출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대상 선정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정책효과와 차이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석결과가 지원대상 선정과 사업설계에 활용되는 데이터 기반 정책설계

체제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좌장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과를 실제 기업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지원대상 선정, 성과관리 및 제도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누구나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그리고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850만 전체 기업 중 95.3%가 소상공인이고, 소기업과 중기업은 4.6%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며 “모두의 성장을 위해선 810만이 넘는 다수의 소상공인이 소기업·중기업으로 더 많이 커나가게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승훈 연세대 교수는 “성장성이 높은 기업과 정책지원 효과가 큰 기업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만큼 사업·기업규모별 특성과 정책효과와의 차이를 함께 고려한 지원대상 선정이 필요하다”면서 “수출지원정책도 수출액 뿐만 아니라 생산성·부가가치·고용 등 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중소업체 “현장 맞춘 노동규제 필요”

대한상의 중소기업위 회의 개최
고용부 차관 초청 정책 논의

중소기업계가 인력난과 노동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상의회관에서 관장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초청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제10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관장준 차관은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AI) 전환 등 노동시장 변화를 짚었다. 청년·중장년·외국인력 확보와 일·육아 양립 지원, AI 활용 역량 강화, 노동시간 단축 지원 등을 정책 방향으로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중소기업의 현실과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살피면서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중소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석근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각자의 업종과 기업 여건에 맞게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고용·노동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외국인력도 한층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주 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제 개선과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정부·공공·금융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과 법정외무교육 이수 방식 개선, 4대 보험 통합 처리 포털 도입도 제안했다.

/원관희 기자 wkh@

CJ대한통운, 당근과 중고거래 물류 확대

내달 10일 첫 ‘당근절’ 지원
오네로 전국 단위 배송 맡아

CJ대한통운이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과 손잡고 중고거래 물류 서비스를 강화한다.

CJ대한통운은 당근이 오는 10월 10일 처음 개최하는 연중 최대 중고거래 행사 ‘당근절’을 맞아 전국 물류 인프라를 통해 행사 운영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당근절은 지역 이웃 간 중고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한 행사다. 고객들은 10월 10일 하루 동안 당근 바로구매를 통해 물품 구매할 경우 1인 최대 5회까지 ‘배송비 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 쿠폰 등록 없이 결제 시 자동 적용되는 만큼 이용자들은 가격대가 낮은 물품부터 희소성이 있는 물품까지 전국 단위로 부담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혜택은 운영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당근절에 함께하는 CJ대한통운 관련 이미지.

CJ대한통운은 주7일 배송 서비스 오네(O-NE)를 통해 중고거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근 바로구매는 판매자가 배송을 신청하면 CJ대한통운 배송기사가 방문 집화해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택배 거래 서비스다. 물품 집화부터 최종 배송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물류 체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위 중고거래 환경을 구축해왔다.

/김승호 기자

LS전선, AIDC 전력사업 확대

‘데이터센터 월드 아시아 2026’ 참가
버스바·커넥터 서버랙 신제품 공개

LS전선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전력 솔루션의 적용 범위를 서버랙 내부로 넓힌다. 대용량 전력 공급에 이어 랙 내부의 전력 분배·연결까지 제품군을 확장하며 데이터센터 전 구간 대응에 나선다.

LS전선은 LS머트리얼즈와 함께 29일부터 3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데이터센터 월드 아시아(Data Centre World Asia) 2026’에 참가해 서버랙용 신제품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제품은 서버랙 내부에서 전력을 분배·연결하는 버스바(Bus Bar)와 커넥터 등이다.

LS전선은 대용량 전력을 서버랙 인근까지 전달하는 버스덕트(Bus Duct)에 이어 랙 내부 제품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혀 AIDC 전력망부터 서버랙까지 아우르는 ‘From Grid to Rack’ 솔루션을 구축한다.

통신과 전력 안정화 솔루션도 선보인다. LS전선의 광케이블은 데이터센터 간



LS전선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DCWA에서 AI 데이터센터용 전력 인프라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LS전선

연결(DCI)과 내부 서버·장비 간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지원한다. AI 연산량 증가로 데이터 트래픽이 늘면서 고용량 광통신 인프라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LS머트리얼즈는 울트라커패시터(UC)를 공개한다. UC는 AIDC의 순간적인 전력 변동에 대응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지원하는 에너지저장장치다.

AIDC 고밀도화에 대응한 차세대 전력 기술도 소개한다. 직류(DC)용 버스덕트와 초전도 전력 시스템을 통해 제한된 공간에서 대용량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이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

KG케미칼

조달청 G-PASS 기업 선정

KG케미칼이 조달청 기업 지정 제도를 활용해 글로벌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KG케미칼은 조달청이 지정하는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기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G-PASS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기업 중 해외 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달청이 선정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올해 3분기 G-PASS 기업으로 55개사를 새로 지정했다. KG케미칼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특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유망기업 집중지원 사업’ 등을 활용해 글로벌 공공조달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KG케미칼은 1954년 국내 최초 민간 비료회사로 설립된 이후 유기질·미생물 비료와 친환경 농자재를 비롯해 건설소재 화학제품, 수처리제, 요소수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왔다.

/양성운 기자 ysw@

중견기업, 경기전망 5분기째 상승

중견련, 800곳 대상 조사
4분기 전망지수 90.5로 올라

중견기업 4분기 경기는 내수가 상승하고 수출은 하락할 전망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29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4분기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87.6) 대비 2.9포인트(p) 증가한 90.5를 기록했다. 5분기 연속 상승세다.

제조업 경기전망지수(90.1)가 전분기 대비 5.7p 상승하면서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식음료품과 자동차 업종에서 두 자릿수 상승폭을 보였다.

비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0.1p 오른 90.7을 기록했다. 부동산, 기타 비제조 업종에서 증가한 반면 건설 업종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수출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하락한 93.7로 집계됐다. 제조업은 전분기 대비 4.7p 감소했고, 비제조업은 0.6p 늘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자동차, 1차금속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비제조업의 경우 운수업종이 두 자릿수 상승했고, 출판·통신·정보서비스업종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 내수전망지수는 전분기보다 1.5p 상승한 91.6을 기록하며 6분기 연속 상승했다.

생산, 영업이익, 자금 등 주요 경영지표 전망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생산전망지수는 전분기에 이어 상승한 반면, 영업이익과 자금 전망지수는 하락했다.

생산전망지수는 93.7로 전분기 대비 1.2p 올랐다. 영업이익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0.9p 감소한 88.9다. 자금전망지수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동반 감소하면서 전분기 대비 3.1p 낮은 93.1로 집계됐다.

김현철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기 회복에 대한 중견기업의 기대가 해외 시장 개척,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